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장르 관습과 한계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은정

(이화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텔레비전이 시사토론 장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르적 양식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토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시사토론 네 편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달 간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텍스트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텔레비전 토론은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적 틀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책토론의 경우 거의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성/거시적인 주제,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진행, 전문가와 남성으로 구성된 패널, 집단적 이해의 반영, 제한된 수용자 접근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론장르가 수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획일적인 관습의 반복에 따라 결국 공론장의 다양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재생산되는 관습적 틀 속에 함몰되어 양식만이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치토론장르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는 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르관습의 전 반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키워드: 텔레비전 토론, 시사토론프로그램, 공론장, 장르, 관습

1. 문제의 제기

민주사회에서 토론은 정치 과정이자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 믿음, 가치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된 다원화

된 사회에서 토론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창출해내는 유용한 사회적 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에 기반하는 토론은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초석이기도 하다. 고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사회적 결정을 내리던 포럼의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 공공토론이 대신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적인 담론 형성에서 매스미디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디어의 공공토론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 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적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미디어 공공토론은 폭넓은 의견과 분석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토론, 다양한 관점의 반영, 집권세력(the powers-that-be)과 대항세력(the powers-that-want-to-be) 모두의 공적 책임을 촉진시킬 수 있다 (McChesney, 1998)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공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왔다.¹⁾ 미디어 토론은 또한 사회의 성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공중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한국사회에서 공적 토론은 주로 텔레비전에 의해 중계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공중과 텔레비전은 채널마다 하나 이

1) 이와 같은 사실은 방송사 개편 때마다 토론 프로그램과 공공성, 공익성을 결부시켜 발표하는 데서도 확인 가능하다. 1998년 4월 <MBC 대토론회>를 신설하면서 MBC는 “공익성확대와 인간성 회복, 도덕성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소홀했던 공영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고(한국일보 98.4.16) KBS도 98년 10월 공영성 향상을 골자로 <김종섭의 쟁점토론>을 신설하였다(중앙일보 1998.10.1). 또한 1999년 가을에도 ‘공영성 강화’를 내걸고 MBC의 <100분 토론>, SBS의 <오늘과 내일>이 편성된 바 있다.(조선일보 1999.9.30) 2001년 봄 개편 역시 SBS <토론공방>을 편성하면서 예외없이 공영성 강화를 발표하였다(동아일보 2001.4.27).

상의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공개토론을 위한 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광범하고 보편적인 공중과 텔레비전의 특성에 따라 텔레비전 토론은 논의의 장의 공공성, 토론자의 대표성, 주제의 사회적 중요성 등의 특징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틀 속에서 토론의 형식과 내용이 재단되고 있다.

현재 공중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토론 프로그램은 EBS까지 포함하면 총 7편으로, 공중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도덕적 쟁점들에 대해 논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세는 수적인 증가 뿐 아니라 시청자층의 확대²⁾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과거 토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의의를 찾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텔레비전 토론이 다수 편성되어 한국사회의 공적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학문적으로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선 텔레비전 토론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을 뿐 정기적으로 토론공간을 제공하는 시사토론 장르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텔레비전이 어떤 방식으로 시사토론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토론 프로그램의 장르 관습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장르³⁾로서 토론 프로그램의 관

2) AC 닐슨이 서울지역 시청자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00년 3월 발표한 시청자 인덱스는 토론 프로그램의 시청자 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에 따르면 중졸 이하 학력 보유자, 월소득 120만원 이하의 시청자층이 최대의 시청층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5세-4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시청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동안 고학력 남성들이 많이 시청할 것으로 여겨지던 토론프로그램의 시청층이 여성과 저학력층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대한매일신문 2000.2.26, 세계일보 2000.2.28, 한겨레 2000.3.3).

습(conventions)에 주목하는 이유는 토론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토론이 공중 토론의 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 사회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첫째, 텔레비전이 시사토론 장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 둘째, 토론 프로그램의 장르 관습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토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텔레비전 시사토론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에 앞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텔레비전 토론이 갖는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한국의 토론 프로그램이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텔레비전 토론의 가능성과 한계

텔레비전 시사토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요청으로 귀결된다. 많은 학자들은 텔레비전 시사토론을 미디어 공론장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론해왔다.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공적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공간, 즉 사회와 국가를 중재하는 공론장은 일치된 여론을 위한 비판적 합의를 형성해 내고 국가로 하여금 시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는다(Habermas, 1962/1989). 그러나 이러한 공론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3) 본 논문은 특정한 장르를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정형화된 텔레비전 장르로 토론 프로그램을 간주하고 관습화된 형식들과 특성들을 밝혀내려는 의도에서 '장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사적 실재가 아닌 이상적 가능성으로 제시된다(Curran, 1991).

텔레비전 토론이 과연 공론장으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미디어 학자들의 입장은 양분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텔레비전이 현대 사회에서 공중토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을 주장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비록 텔레비전이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실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은 진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81/1987)는 텔레비전 토론이 시민의 공적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공개토론이 아닌 단순한 홍보와 수동적 관객의 영역이 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인의 관심을 정치적 행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의사공론장(pseudo-public sphere)을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체제가 점차 생활 세계 속으로 파고들며 따라 공중이 기득권층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은 훼손되고 그 결과 공론장의 식민화와 재봉건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정치를 한 편의 볼거리로 규정하였고, 공중들에게 미리 정리된 간편한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공중들을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에 맞게 조건화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더 이상 공중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합리성을 확보해 주는 대행자가 아니라, 공중을 방관자로 전락시키는 수단이 되었으며,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위한 통로의 구실을 하는 대신에 여론을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은 비판적 공론장의 복구에 달려 있고, 공론장의 복구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소통과 공익에 합의할 수 있는 토론 능력을 소지한 새로운 비판적 시민들의 양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스코트(Scott, 1996/1998)는 다른 이유에서 텔레비전 시사토론의 역량에 회의를 표시한다. 그는 시사토론이 중요한 쟁점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와 특별한 관심

이 있는 소수 외에는 시청하지 않고 시청자층도 일부 집단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텔레비전 토론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심각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본질적으로 텔레비전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뉴콤과 허쉬(Newcomb & Hirsch, 1984)는 텔레비전 토론이 갖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보다 주목한다. 그들은 텔레비전 시사토론은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이 경합하는 포럼이며, 시사적인 공격 토론과 논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문화적 포럼이다. 이들은 토론에서 분명한 합의나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다 해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토론에서 결국 보수적인 관점이 옹호된다 하더라도 논쟁이 방송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사토론은 커뮤니케이션의 협상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민주적인 가능성을 여전히 담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보완을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커랜(Curran, 1991)은 엘리트층의 특권화된 접근권과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공중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즉 시사토론이 사회적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목소리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일반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다 강화시키는 접근의 개방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선거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95년 서울시장후보 텔레비전 토론과 97년 대선 텔레비전토론 이후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정치과정으로서의 텔레비전 토론의 제도적 의의, 텔레비전 토론의

사회적 효과, 텔레비전 토론의 내용분석 등이다. 단기적, 일회적인 선거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에 관해서는 학위논문을 비롯해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정기적으로 편성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텔레비전 시사토론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은 모두 다섯 편으로 제작측면, 현실구성, 논증에 관한 연구 각 1편, 시청자참여 연구 2편으로 매우 제한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 시사토론에 허경호와 강태완(1999)의 연구는 텔레비전 시사토론의 수사학적 형식과 논증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김응숙(1999)은 시청자참여 토론 프로그램의 구조와 담론에 대해 분석하였다. 허경호와 강태완의 연구는 토론에서 사용되는 논거와 토론규칙 등 논증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고, 김응숙의 연구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심야토론>, <아침마당>, <여성저널> 등 시청자참여 토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청자 참여의 방식과 틀을 진단한 것으로 시사토론에 관한 집중된 논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미디어 시사토론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논의는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 기대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공중과 텔레비전이 구축하는 시사토론 공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것이 요청된다. 과연 우리의 미디어 토론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한국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역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이 어떠한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가져 왔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토론 프로그램이 하나의 장르로서 성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토론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 프로그램은 그 어떤 텔레비전 장르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와 큰 관계를 맺어왔으며 정치상황에 따라 편성과 형식, 내용에서 큰 부침을 겪어왔다.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이래 여러 형태의 토론 대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왔지만 <동서남북> 폐지 이후 <심야토론> 전까지 진정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⁴⁾ 토론 프로그램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1987년 6.29 선언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토론 프로그램은 그 성격과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공중과 토론 프로그램은 60년대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다. KBS가 1962년 <TV 응접실>, <KBS응접실>, 1965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방영한 데 이어 TBC가 1965년 <이주일의 회견>, 1967년에 <동서남북>과 1969년 <TBC 공개토론회>를 방영하였고, MBC가 1969년 <임택근 모닝쇼>, <젊은 대화> 등을 편성하면서 점차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의 토론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뷰 혹은 좌담, 대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중 TBC의 <동서남북>은 최초의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초에도 토론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편성되었다. MBC가 1970년 한 주간의 주요 시사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시사 레이다>라는 좌담 프로그램과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경토론>을 방송하였고 TBC는 <동서남북>을 계속 방영하는 가운데

4) 진정한 의미의 토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안광식(1987)은 <동서남북(TBC, 1967)>으로, 윤호진(2000)은 <심야토론(KBS, 1987)>으로 꼽고 있다.

데 1971년 교수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대화>, 1972년 원로와의 대담 프로그램 <만나고 싶었습니다> 등을 편성하였다. KBS는 1971년 <총리와의 대화>, 1972년 <정부와의 대화>, <정당 토론회>, <희망옹접실> 등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1972년 4월에는 TBC의 <동서남북>, <대화>가 동시에 폐지되는 등 토론 프로그램은 70년대 중반부터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대화>는 1973년에, <동서남북>은 1975년에 부활되었으나 논의의 심도는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기와 1980년대 초반에는 텔레비전 편성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유신과 5공화국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다(안광식, 1987).

1980년 초반부터 다시 토론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였지만 대개 생활 주변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1980년대 초에 편성된 토론 프로그램들로는 KBS의 <90분 토론>(1980), <역사의 증인>, <8시에 만납시다>, <독점여성들의 9시>(1981), <시민법정>, <11시에 만납시다>(1982)와 MBC의 <TV 독서토론>, <이야기 좀 합시다> 등이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비교적 시사적인 주제를 다룬 MBC <일요토론>, <일요광장>, KBS <금요토론>, <시청자토론> 등이 편성되었지만, 계도성이 짙었고 형식도 좌담 나열식으로 전체적으로 경직된 분위기였다(정병수, 1987).

6.29 선언 이후 토론 프로그램은 일대 전기를 맞았다.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방송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완화되고 언론노조가 설립되면서 텔레비전에서 보다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가능해졌다. 선언직후인 87년 7월에 KBS는 <금요토론>을 즉시 편성하였고 MBC는 8월에 <진단 '87'>을, 그리고 KBS <심

야토론>이 같은 해 10월에 편성되었다. 이후 1988년 KBS <TV회견>, 1989년 MBC <시사토론> 등이 이어지면서 토론 프로그램은 하나의 장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붓물 터지듯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한 토론 프로그램은 민주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으며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모았다.

90년대에도 토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KBS는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심야토론>과 더불어 <정범구의 세상읽기>(1998), <쟁점토론>(1998), <배유정의 터놓고 말해봅시다>(1999)를 방영하였다. MBC는 <시사토론> 이후 공백기를 두었다가 1998년 <생방송 MBC 대토론회>를 방송하였고 1999년 <100분 토론>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SBS에서는 1994년 <일요포럼>을 시작으로 1999년 <오늘과 내일>, 2000년 <시사포럼>을 방송했으나 주로 아침 시간대에 편성하고 잦은 개편으로 타 방송사에 비해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현재(2001년 가을) 방송되고 있는 공중파 3사의 토론 프로그램은 KBS 1 TV <생방송 심야토론>, <일요진단>, <토요화제 이야기광장>, KBS 2TV <시사난타 세상보기> 등 KBS 네 편과, MBC <100분 토론>, SBS <토론공방> 등 모두 여섯 편이다. 이 중 KBS <토요화제 이야기광장>, <시사난타 세상보기>, SBS <토론공방> 등은 2001년 봄 개편 이후 신설되어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방송역사에서 통칭 ‘토론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져온 프로그램들은 다시 형식상 인터뷰형식, 대담·좌담 형식, 논쟁형식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대체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대담형식이, 이후에는 논쟁형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장르의 변화를 보여준다. 6.29 선언 이전의 토론 프로그램들은 억압적인 정치적 압력 때문에

주제 선정과 비판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따라서 토론 장르의 본질인 정치성과 비판의식이 결여된 명목상의 토론 프로그램들이었다. 따라서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안전한 내용 위주로 다루었으며, 형식에서도 인터뷰 혹은 좌담회 형식이 주종을 이루어 토론이라기보다 정보전달과 해설, 설득에 가까웠다. 그러나 87년 시작된 <심야토론>의 논쟁형식은 후속 토론 프로그램들이 전범으로 뒤따르면서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은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고수해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장르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대상 및 방법

현재 방송 3사에서 방영되는 토론 프로그램은 모두 여섯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분석의 폭을 좁혀 <생방송 심야토론>, <100분 토론>, <토론공방>, <시사난타 세상보기> 등 네 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 6월 한 달간이며 총 18편이 분석되었다. 분석방식은 텍스트 분석에 기초하여 이들 시사토론의 형식과 내용의 관습적(conventions) 틀을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분석에서는 포맷과 진행방식, 사회자, 패널, 방청객 등 토론 참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내용분석에서는 시사토론의 주제, 통용되는 지식과 논거 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짜여진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성격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토론 프로그램 공간이 표방하는 형식적, 내용적, 의미적 특징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연구결과 및 논의

1) 포맷

분석대상 프로그램인 <심야토론>, <100분 토론>, <토론공방>, <시사난타> 모두 심야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생중계/녹화중계 면에서 살펴보면 <시사난타>만 사전녹화이고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의 세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⁵⁾

스튜디오 토론장의 참석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자와 패널, 방청객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져 배치되며, 사회자는 양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데, 대체로 ① 사회자의 문제제기 및 패널소개, ② 패널토론, ③ 시청자 전화연결, ④ 답변과 후속토론, ⑤ 사회자의 토론 마무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은 미리 구성되어 사회자에 의해 순서대로 제시되는 쟁점, 발언권의 순차적 배분 등 조직적이고 통제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시사난타>는 발언권 배분보다는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비조직화된 진행방식을 보인다.

토론의 구성은 다시 스튜디오 패널토론과 시청자의 전화의견청취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토론이 스튜디오 패널 토론 위주로 전개되고 일반시청자의 의견이 그 속에 삽입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토론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찬반 토론양식을 따르고 있었는데,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은 사안에 대해 찬성/반대,

5)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토론자, 방청객, 시청자 모두에게 토론이 가지는 특유의 긴장감과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함이며 심야시간대에 주로 위치한 것은 평균 2시간-2시간 반 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편성상의 고려 때문이다(소현정, 1996).

혹은 긍정/부정측으로 크게 나뉘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시사난타>는 대체로 찬반토론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찬반을 가르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⁶⁾

이처럼 심야시간대 생방송, 찬반토론, 스튜디오 패널토의 위주로 시청자 의견을 첨가하는 형식이 대체적인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 주제

토론 프로그램은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fact)에 대한 토론, 정책(policy)에 대한 토론, 가치(value)에 대한 토론으로 나뉠 수 있다(Jensen, 1981, pp. 47-51). 사실에 대한 토론은 객관적인 사실적 자료나 통계수치, 사건의 발생여부와 정황, 사람 혹은 사물의 존재유무 등에 대한 토론이며, 정책토론은 사안에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의 타당성을 토론한다. 가치에 대한 토론은 좋고 나쁨, 도덕성 등 가치적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토론이다. 가치토론과 정책토론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복안(plan)의 존재유무이다. 가치토론의 논제는 대개 특정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낫다는 점을 주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에 비해 정책토론은 복안의 제시와 그에 대한 정당화, 집행시 얻어질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성격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나누어 본다면,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사난타>는 사회의 가치규범과 문화적 잣대를 논하는 가치토론의 유형으

6) 분석대상 총 네편 중 세편은 찬반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한편만이 자유토론이었다.

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정책토론 유형의 토론프로그램은 정치/경제에 관한 심각한 쟁점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시사난타>는 정치/경제 관련 주제가 부재하고 사회/문화적인 주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제기 및 관심사가 완전히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 주제별 분포

프로그램	날짜	제목
심야토론	6/2	교통위반신고보상금제
	6/9	물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6/16	노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6/23	북한상선 대응논란
	6/30	언론사 세무조사, 어떻게 볼 것인가
100분토론	6/7	미술교사 누드사진, 어떻게 볼 것인가
	6/14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6/21	공무원 노조 필요한가
	6/28	언론사 세금추징 정당한 법집행인가
토론공방	6/1	건강보험 종합대책, 상생의 처방인가
	6/8	주 5일 근무제, 이제는 쉬어도 되나
	6/15	김정일위원장은 오는가
	6/22	친구 아이가
	6/29	조세정의인가, 언론탄압인가
시사난타	6/4	선생님의 누드사진
	6/11	엽기발랄? 엽기광란
	6/18	매춘 10대 처벌해야 하나
	6/25	종아리에서 눈썹까지 그녀의 몸은 공사중

(1) 정책지향성 토론: 하드/거시적 주제

정책토론에 속하는 세 프로그램에서 2001년 6월 한 달간 다룬 주제는 정치/정부활동이 8편, 경제관련이 3편으로 전체 14편 중 79%인 11편이 정치/경제에 관한 것으로 진지하고 딱딱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정책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6월에 다루어진 주제 중에서 6.19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남북관계문제 조망, 6.12 총파업과 관련한 노사관계쟁점,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루어졌다. 주제의 겹치기 현상은 시사토론의 특성상 시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한 달 간 방송되는 4-5편 중 3편이 서로 중복된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공적 토론의 장에서 의제설정의 폭이 협소함을 드러낸다.

정책토론의 주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구체적인 주제가 아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주제가 많다는 점이다. 분석대상이 된 6월 한 달의 방송분 중 타이틀에서 추상적/거시적 주제는 모두 세 편이었었는데 “남북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노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물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이었다.⁷⁾ 지나치게 크고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한 사안 속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포함되어 각각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는 사안에 포함된 쟁점들 중 제대로 논의되는 것은 한두 개 밖에 없어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미진하고 국지적인 논의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⁸⁾ 실제로 정책토론에서 편당 제기되는 세부쟁점 수는 9-13개로 평균 10개 내외의 많은 쟁점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었다.

(2) 가치지향성 토론: 소프트/구체적 주제

<시사난타>에서는 앞서 정책토론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정치/경제

-
- 7) 거시적 논의에 관한 선호는 사회자 멘트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요.”(심야토론 6/9), “사례보다는 큰 이야기를 해 주시죠”(심야토론 6/16)
- 8) KBS <심야토론> 6/9 “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실제 의제는 ‘댐건설 찬반논쟁’이었다. 거대댐 건설 문제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일기예보 설비투자,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의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 인공강우 실험 등 다른 물관리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가벼운 주제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6월 방송된 총 4편 중에서 문화적 주제가 3편, 사회적 주제가 1편으로 나타나 정책토론과는 문제의식의 방향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준다.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책토론에 비해 주제의 폭이 좁고, 세부쟁점의 수도 사안당 평균 5-6개로 정책토론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패널들이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공식화된 토론에서 제기되지 않는 주변화된 의제를 다룬다는 점, 사회의 통념과 가치적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고 있었지만, 시청률을 의식하여 주로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⁹⁾

3) 토론 참여자

(1) 사회자

분석대상인 네 편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직업은 언론전문가 3명, 문화인사 1명이었는데, 사회자의 성격은 시사토론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대상인 시사토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사회자의 단독진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사토론이 남성장르라는 통념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¹⁰⁾ 토론형식에 따른 사회자의

9) 분석기간 동안에도 누드사진, 원조교제, 성형수술 등을 다루고 있으며, 4월 신설 이후 줄곧 트랜스젠더(5/14), 미인의 조건(5/21), 40대의 사랑(5/28) 등 성과 육체에 관련된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어왔다.

10) 역사적으로도 여성 토론사회자의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그나마 단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 <심야토론>의 여자사회자로서 이연숙씨가 1993년

성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토론: 권위적 언론전문가

남성 언론전문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공식적인 정책토론 프로그램에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회자는 대기자(<심야토론>, <토론공방>), 시사평론가 겸 교수(<100분토론>)로서 토론의 질서와 흐름을 정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토론의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에 따라 토론을 진행시키며, 직접 질문을 던지거나 패널에게 발언권을 부여/박탈하며, 패널들의 토론을 요약/정리한다. 또한 그자신 식견과 판단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분석대상 중 <100분토론>에서 이러한 주관적 의견제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자에게 부여된 직권 중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역할은 쟁점 제시와 발언권 부여라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시간에 많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발언의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쟁점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패널들은 제지를 받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도록 제지되며, 또한 발언을 너무 자주, 오랫동안 하는 패널 역시 사회자에 의해 제한을 당한다.¹¹⁾

10월-1994년 4월, 박찬숙씨가 2000년 2월-5월간 진행한 바 있다.

11)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요, 제가 그냥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남교수님께서 토론장에서 못다하신 말을 말씀하실 기회를 1분 드리고, 박교수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100분토론 6/14)

“지금 토론이 벗어나서 자꾸 언론문제로 가고 있는데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어떤 쟁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모처럼만에 발언권 얻으셨다고 일방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니까 토론 진행하기도 힘들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한 분이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면서 주거나 받거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심야토론 6/16)

② 가치토론: 비권위적 문화계인사

<시사난타>의 사회자는 정책토론의 사회자와는 달리 공연기획자 겸 방송인이다. 이러한 비권위적인 면모는 진행에도 드러나는데, 토론의 담론을 조정해 나가는데 개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회자는 쟁점제시와 발언권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데, 규격에 맞춘 진행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슈가 쟁점으로 발전되도록 방임하는 편이며, 패널들의 토론 내용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발언권에 대해서도 통제하기보다는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자유롭게 패널간 반박이 일어나는 가운데 먼저 말하는 패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2) 패널: 전문가와 일반인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은 각각 평균 패널수가 6명, 5명, 5.4명으로 비슷한 수였으며, <시사난타>의 평균 패널수는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패널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집단이 전체 105명 중 45명(43%)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출연빈도가 높았던 집단은 정치인/고위공직자로 19명(18%)였다.

① 정책토론: 집단/전문가/권력 엘리트

정책토론의 경우 패널은 고위공무원, 기업인, 단체장, 기업인, 교수 등 여론지도층으로만 구성되어, 일반시청자는 패널에서 제외되는 모습을 보인다. 토론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치는 토론장과 방청석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¹²⁾

12) <심야토론>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6/2)에서는 벌금에 불만을 가진 주민과

<표 2>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의 직업 및 평균패널수

		심야토론	시사난타	100분토론	토론공방	계
전문가 /교수	교수	10	3	8	8	29
	연구원	2	1	1	2	6
	변호사/법조계	1	4	1	1	7
	의사		3			3
정치인 /고위인사	국회의원/정치인	5		2	4	11
	고위공무원/정부관련단체	4		1	3	8
	기업인/경제유관단체	1			2	3
	언론인/언론유관단체	1	4	2		7
	시민단체	5	2	2	1	10
	노조	1		1	2	4
	작가/평론가		5	1	4	10
	교사/강사		3	1		4
	방송인/연예인		2			2
	기타/일반인		1			1
	계	30	28	20	27	105
	평균패널수	6	7	5	5.4	

정책토론의 패널직업에서는 교수/전문가 집단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고위공직자가 25%로 이 상위 두 집단이 패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수는 분석대상인 정책토론 프로그램 14편 중 단 1편만 제외하고 빠짐없이 출연하여 전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집단이었다. 세 번째로 출연빈도가 높았던 것은 시민단체로 10%를 차지했다. 또한 공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패널이 38명¹³⁾으로 정책토론 프로그램의 총 패널 77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촬영단속원으로 활동중인 사람이 직접 출연하여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그 위치는 패널석이 아닌 방청석이었다.

13) 구체적인 소속은 정부 7명, 정당 9명, 노조 6명, 시민단체 7명, 신문 및 언론단체 3명, 기업 3명, 기타기관 3명 등이다.

패널은 대부분 교수 및 연구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출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거의 대다수의 패널이 남성으로, 여성패널은 겨우 3명에 지나지 않았다.¹⁴⁾ 또한 패널의 겹치기 출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¹⁵⁾ 이렇듯 소수의 목소리만이 대변되는 토론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논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② 가치토론: 개인/일반인/문화 엘리트

<시사난타>의 패널은 각각 3-4명씩의 찬반 패널과 한두 명의 초대 손님으로 패널이 구성된다. 패널은 거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며, 초대손님은 사안과 관련된 일반인 혹은 연예인이다. 일반인 패널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토론과 달리 일반인패널과 전문가 패널을 함께 구성하지만, 전문가와 일반인의 패널구성비가 평균 4:1로 여전히 전문가들의 비중이 크다.

전체 패널직업을 살펴보면, 작가·평론가 5명, 기자 4명, 변호사 4명, 교사·강사 3명, 교수 3명 등 정책토론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패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인, 고위층 공무원, 기업인, 노조관계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 권력형 엘리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자격을 가진 패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여성패널의 비율에서 드러난다. 정책토론이 남성위주의 패널로 구성된 반면, <시사난타>는 전체 28명의 패널 중 여성이 10명(35.7%)으로 여성비율이 다른 토론프로그램보다 훨씬 높게

14) 여성패널의 직업은 한나라당 의원, 영화평론가, 청소년 상담원 등이었다.

15) 김영배 경총전무는 노사관계를 다룬 세 편의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했으며, 강지원 검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두 편의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했다.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인패널은 사안에 관련된 경험자를 초대하는데, ‘엽기’를 주제로 다룬 경우 엽기가수 이박사와 엽기 일본어강사가 출연하였고 ‘성형수술’이 주제인 경우 열 번 성형수술한 여성이 직접 패널로 등장하여 전문가 패널과 함께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은 전문가패널의 탁상공론에 보다 경험적인 생생한 현실감을 실어준다.

(3) 일반 시청자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무렵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매체를 소개하고 있으며, 중간에 시청자 참여코너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지막 멘트 역시 시청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형식은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며, 시청자 의견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다.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공중은 다음의 여섯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 ‘보여지나 발언하지 않는 공중’으로, 방청객으로서 참석한 시청자들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경청하는 경우이다. 많은 토론프로그램이 토론의 현장감을 살리고 가정의 텔레비전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선의 동일시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디오에 방청석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방청객들은 시각적 배경화면이나 음향기기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둘째, ‘편집된 공중’으로 비디오 영상자료 등에서 시민의 소리 등을 취재하는 경우이다. 대개 거리에서 간단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집한 뒤 편집하여 간단하게 방영한다. 셋째, ‘익명의 참여자로서의 공중’이다. 이는 ARS집계 등으로 숫자 속에 파묻혀 집단으로 제시되는 공중이다. 이 경우 시청자는 단지 물리적인 숫자

로만 존재한다. 넷째, ‘들리나 보이지 않는 공중’이다. 전화참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다섯째,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중’이다. 방청객으로서 참석하여 패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유형이다. 여섯째, ‘주체로서의 공중’이다. 이는 일반인이 토론에 패널자격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으로 토론의 흐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방영되는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의 경우 시청자는 다섯 번째 단계까지 참여가 허용되나 주체로서의 공중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사난타>의 경우 여섯 번째 단계까지 시청자 참여의 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① 정책토론: 간접적, 일방적 접근권

정책토론에는 일반공중은 전문패널 위주로 진행되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현재 방영되는 정책토론들의 시청자 참여는 대개 전화연결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방청객 의견진술도 나타난다. 유형이 어떠하든 토론의 논쟁에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는데, 한 프로그램 당 평균적으로 대략 5분-10분 정도로 최소한의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참여기회는 시청자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¹⁶⁾

시청자 의견코너는 고위공직자와 공인들이 일반 공중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유일한 창구이며 시민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장치이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보인다. 회당 수백 통이 넘는 전화/

16) 또한 시청자 의견은 한두마디로 짧고 간단하게 말해줄 것이 요구되고, 그나마 중간에 말을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시청자전화 코너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전화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을 채울 영상이 없다는 데도 기인한다.

팩스/인터넷 참여자들과 방청객들 중 극소수만이 기회를 얻으며, 또한 가장 전형적인 찬성 1건, 반대 1건이 제작진에 의해 선택되어 제시된다. 그러므로 논의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의견이나 중립적인 의견은 표면화 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발언기회를 얻는다 해도 오랫동안 발언하지 못하며, 일회적인 접근만이 허용되므로 패널의 질문이 충분치 않더라도 재차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청자의 접근권은 일방적이고 일회적으로 제한된다.

ARS 투표참여의 경우 제시된 문항에 대한 찬반 투표 내지는 설문조사 일 뿐 실질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ARS는 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새로운 제 3의 대안제시가 아예 막혀 있는 닫힌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¹⁷⁾

② 가치토론: 직접적, 쌍방적 참여

<시사난타>는 청중들의 간접적 참여와 더불어 패널로서의 직접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일반인이 패널의 성격으로 직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엘리트 위주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에 비해 수평적,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무작위로 일반공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처음 제시되는 비디오 클립과 클로징 멘트에서 인터넷의견 소개 등이며, 전화연결의 경우 무작위로 걸려온 일반시청자 전화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섭외된 당사자와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¹⁸⁾ 시청자 전화연결

17) <토론공방> 6/22 “친구 아이가”의 ARS 조사결과에 대해서 사회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가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ARS는 토론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동참했다는 호응도 외에는 통계적인 신뢰도 면으로나 내용 면으로도 거의 의미가 없다. 시청자들의 ARS에 대한 높은 호응은 제한된 토론 접근권에 대한 시청자들의 욕구를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미술교사 누드사진’편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미술교사와, ‘매춘 10대 처벌문제’

이 고정적인 코너로 정착되어 있는 다른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달리, <시사난타>에서 전화연결을 하는 경우는 일반인패널이 직접 토론에 출연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경우 전화패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 지식의 담론: 전문적 지식, 대중적 지식, 사적 경험

토론에서는 대개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성격은 크게 전문적 지식, 대중적 지식, 사적 경험으로 분류된다. 토론장르마다 선호되는 지식의 범주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토론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비공식적인 토론에서는 대중적 지식과 사적인 경험이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된다.

(1) 정책토론: 전문적 지식 간의 대립

공식적인 정책토론의 경우 제기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공식적이고 검증된 자료들이다. 즉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이론적 지식이 기반이 되는데, 대개 사실적인 팩트(fact)가 정당화의 기반이 되며, 때로는 학문적 이론이나 외국의 선례, 법 조항 등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국론분열’, ‘국민정서’와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진술이나 ‘사회정의실현’, ‘청소년 보호’ 등의 도덕적인 명제도 정당화 기제로서 강력하게 이용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적 지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¹⁹⁾ 분석대상인 정책토론들에서 많이 사용된 근거는 각종 통계수치 및 자료, 언론보도, 여론조사, 법률조항, 외국의 실례 등

편에서는 실제로 매춘을 경험한 여고생과 전화를 연결하였다.

19) <토론공방> “주 5일 근무제: 이제는 쉬어도 되나”(6/8)에서 사용자층이 제시한 연간휴일수에 대해 노조측은 제시된 자료의 계산방식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며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이었다.

<표 3> 정책토론 패널의 주장 증빙자료

프로 그램 분류	심야토론 6/16 노시문화 이대로 좋은가	100분토론 6/21 공무원 노조 필요한가
통계수치 및 자료	-노동부의 파업건수, 사업장 발표자 료인용 -전국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 수 -구속 노동자 현황 보고 -비정규직 수 및 보수 현황 보고	-ILO 가입국가 중 공무원 노조금지 현황 -공무원 구조조정 현황 통계보고서 인용 -공무원과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퍼 센트 비교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급여비율보 고서 인용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인용
언론보도	-조선일보 MD관련보도 인용 -한겨레신문 사계폭발물 관련보도 인 용	
외국사례	-독일의 노조파업 사례 -OECD 권고 인용	-프랑스 전철파업 사례 -독일파업사례 -일본의 공무원노조 인정사례
법률조항, 규정		-헌법 33조 2항 -ILO규정 인급 -공직윤리법 시행령 2조 -노동조합법
기타	-국민여론 및 국민정서 -파업현장의 경험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경험 -공무원의 헌신적 행동사례

대개 토론의 논쟁은 논거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 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전문지식과 현실적 경험과의 대립도 나타나기도 한다. 공적 세계의 이론과 생활세계의 경험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시청자 전화연결이나 방청석의 의견제시 코너이다. “여기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본 사람 있느냐(심야토론 6.16)”는 식으로 전문가들의 탁상공론과 현실적인 일상적 경험간의 괴리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청자 참여코너가 짧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질문에 의해 빚어진 갈등은 곧 패널의 원론적인 입장 반복에 의해 쉽게 덮여진다.

(2) 가치토론: 대중적 지식과 사적 경험의 공존

가치관의 대립을 주된 쟁점으로 삼는 <시사난타>에서 주장에 대한 정당화는 ‘여성의 상품화’, ‘순결 이데올로기’, ‘표현의 자유’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비교하기 어려운 개념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가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근거로는 객관적인 팩트보다는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적인 지식이 사용되고 있었다.

전문패널과 일반인패널로 구성되는 <시사난타>는 일반인이 제시하는 경험적인 지식과 더불어 전문패널들이 제시하는 공적 지식이 함께 공존한다. 그러나 전문패널들이 제시하는 지식은 엄격하고 정확한 전문적 지식이라기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중적 지식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통계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쉽고 일반화된 진술을 근거로 제시한다.²⁰⁾

이들이 제시하는 대중적 지식은 미디어 등에서 보여지는 사회의 추세, 보통사람들의 여론, 속담이나 옛말 등에서 권위를 빌어오는 일반화, 문학작품의 인용,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된 지식담론 등이 주류를 이루며, 이러한 대중화된 지식은 전문가의 입을 통해 권위와 설득력을 얻는다.

일반인 패널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지식은 대개 공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 아닌 개인적으로 경험한 주관적 체험담이다. 이들은 합리적 설득과 같은 이성적인 근거가 아니라 공감 등 감정적, 심리적 근거에 의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반인 패널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경험담은 추상적인 전문패널의 논의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주면서 토론에서 상당

20) <시사난타> “매춘 10대 처벌해야 하나”(6/18)에 출연한 강지원검사는 “제가 여기서 법적인 조항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라며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오히려 부담과 저항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비중을 차지한다.²¹⁾

<표 4> 가치토론 패널의 주장 증빙자료

프로그램 분류	시사난타 6/23 종이리에서 눈썹까지 그녀의 몸은 공사중
통계수치 및 자료	-미용성형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방흡입의 효과 -성형수술 건수 및 인구대비 비율
언론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문학작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일본 소설의 인용
사적 경험	-내방하는 환자들의 추세 -못생겼을 때와 수술한 뒤의 처우 비교 -콤플렉스 극복경험담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의 예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을 보고 느낀 경험
가치적 근거	-여성의 상품화로서의 성형수술 -군사문화 잔재로서의 미의 획일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미의 추구

시청자 참여가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 시간의 쌍방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사난타>에서는 공적 지식과 사적인 경험의 충돌과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위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공적인 지식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일반시청자들의 경험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현실적 사례로서 다루어지며, 전문가들은 사적인 경험을 공적으로 해설·진단하는 특권을 여전히 담지하고 있다.

21) 실제로 원조교제를 다룬 <시사난타>에 전화로 출연한 원조교제 여학생의 경우, 원조교제를 처벌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계속할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할 것 같아요”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이 사안은 패널들간에 추측성 논쟁이 계속되던 사안이었는데, 실제 경험자의 대답은 이후 토론방향에서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6. 결론: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한계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의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토론의 틀을 구축하는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의제로 선택하는 주제의 특징과 전문가의 역할, 공중의 참여, 토론에서 통용되는 지식의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텔레비전 토론은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심야토론>의 포맷이 그대로 하나의 전형으로 굳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크게 정책토론과 가치토론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정책토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의 특징은 공적·사회적 주제를 다루며 주로 대표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출연한다는 점이다. 패널은 고위공무원, 정치가, 여론지도자, 전문가, 관련된 이해단체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인적 입장이 아닌 집단을 대표하는 대변자적 입장에서 주장을 공식화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등이다. 토론과정은 주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으며 감정의 표출은 최소화된다.

반면 가치토론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사난타>는 무겁고 딱딱한 공식적 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비조직적인 진행, 주변적인 주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공인이라기보다는 개인자격으로 출연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었다. 따라서 주장이 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포함된다. 토론과정에서는 크게 웃거나 농담을

하는 등 감정적인 표출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텔레비전 토론이 사회의 공적인 담론을 잘 담아내고 생산적으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제와 적합한 패널, 그리고 논쟁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된 틀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텔레비전 토론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제와 참여자, 그리고 형식 모두에서 경직되고 획일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방송사의 대표적인 시사정책토론 프로그램인 <심야토론>, <100분토론>, <토론공방>에서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미리 준비된 틀과 쟁점을 통해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리된 쟁점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는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데, 틀에 박힌 유사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찬반 논쟁, 규격화된 틀에 맞춘 진행,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자유로운 반박을 통제하는 모습 등은 내용보다 규칙과 질서 등 형식적 틀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자는 기존의 미디어 토론의 틀에 맞추기 위해 논지의 심층적인 전개를 통제하는데, 이렇게 논쟁을 형식적인 틀 속에 구조화하고 재단함으로써 논쟁의 깊이와 생생함은 줄어들게 된다.

강태완, 김태용, 이상철, 허경호(2001)는 토론은 입장이나 주장이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고 각자의 주장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론의 경우 타협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토론 안에서 견해차이를 좁히거나 일치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가지고 있던 입장차이는 토론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며, 결론은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면서 분열 속에 종결된다. 랭과 랭(Lang & Lang, 1968)은 오히려 공개토론이 정치적인 논쟁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경쟁자의 주장보다 우월함을 입증해야 하는 압력 때문에 타협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론의 평행선적 귀결은 찬반토론 양식을 취하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들은 찬반토론 형식을 관습적으로 채택하여 뚜렷하게 이분화·양극화된 틀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토론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가치 투쟁의 장, 다양한 담론의 대결이 일어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기대되고 있지만, 대개 쟁점에 대한 입장은 하나의 입장과 그에 대립되는 입장의 두 개로만 요약되며²²⁾, 대체로 양자의 대립이 첨예할수록 치열한 논쟁으로 선호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담론의 형성은 대립하는 쟁점이 분명하게 부각됨으로써 시청자에게 흥미있는 논쟁을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어렵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한다. 이렇게 양극화된 가치를 선호하는 토론에서 중립적인 입장은 분명하지 못한 의견, 타협적 의견, 양시론, 양비론 등으로 평가절하된다.²³⁾

문제의식과 주제선정에서도 정책토론 간에 전혀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대체로 정치/경제에 관련된 쟁점과 많은 쟁점을 포괄한 거시적인 거대담론을 선호하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쟁점과 사안이 포함된 광범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논쟁은 깊이를 상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없게 된다. 또한 토론프로그램마다 거의 똑같은 문제를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획일화된 사회적 의제설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논의수준으로 비슷한 주제를 펼친다면 다각적인 논의보다는 동질적인 공적 담론만이 반복될 뿐이다.

22) 봉합된 결론을 지양하는 방송국의 자세는 SBS <토론공방>의 사회자가 “우리 프로의 목적은 특정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23) 실제로 한 패널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지만...”이라면서, 이는 찬/반 양측 어디에도 앉을 수 없는 타협적인 입장을 가진 패널의 고충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자 구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남성지배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자와 패널은 대체로 전문인/교수, 정치인/고위인사 등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이었으며, 또한 거의 전부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소수의 엘리트 남성층으로 이루어진 패널은 그나마 반복출연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이 소수인데다 또한 방송의 패널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구성은 우리사회에서 여론형성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이해집단과 세력의 판도를 보여주는데, 이분화된 대립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세력과 대항적인 세력의 구획을 읽어낼 수 있다. 토론의 이분화된 대결구도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지배세력과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는 대항세력의 대립으로 채워지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파워게임을 표상한다. 대체로 토론 패널은 경제인단체 대 노조, 장관/공직자 대 시민단체/교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작가/평론가 대 학부모/청소년 보호단체 등 보수와 진보, 자유와 규제, 가부장제와 페미니즘, 현상유지와 사회변혁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보수적 혹은 진보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론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주류, 지배집단의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비주류와 일반 공중, 피지배집단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엘리트집단, 지식인집단, 남성집단, 거대화된 이해집단 등의 특징을 가진 토론 참여자는 사회의 주변부 집단이라기보다 집단적인 세력을 대표한다. 이에 따라 토론의 장은 집단화된 목소리를 지배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집단화되지 못한 개별적인 의견들은 침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토론에 있어 시청자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소수 엘리트층의 내부 논의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중의 민주적 참여, 다양한 입장과 관점의 반영이 미디어의 공적인 포럼에서 나타

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시사토론은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을 공중들에게 그대로 축소하여 보여주는 불거리일 뿐 공중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수적으로 늘어난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의 다양한 관심사를 담아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중의 접근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정형화된 틀을 고수하고, 완전히 동질적인 주제와 토론참여자를 반복 재생산함으로써 공적 포럼의 논의를 획일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컴과 허쉬(Newcomb & Hirsh, 1984)는 미디어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자유롭게 경합함으로써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고 시청자들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억압된 모습으로 공론장의 진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자면, 공론장의 다양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재생산되는 관습적 틀 속에 함몰되어 천편일률적인 형식과 내용만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세력의 내부논의, 그들만의 폐쇄적인 공론장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존의 시사정책토론의 완고한 전형성에 비해 새로 신설된 <시사난타>의 포맷과 주제, 패널구성 등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토론의 형식적/내용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고정된 틀에 박히지 않은 유동적인 형식과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의견이 개진되는 패널구성, 공중의 참여폭 강화, 그리고 차별화된 의제 선택 등은 보다 유연하고 민주적인 미디어 토론의 모델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보다 개방적인 토론문법의 시도는 기존의 경직된 관습적 틀에 얽매인 정책토론장르에서도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토론은 중심적

인 현안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중요성을 담지한 만큼 더더욱 다양한 공중의 입장과 관점을 담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공중의 접근권을 보다 확대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공공 토론은 토론이 가진 민주적 정신과 자유로운 비판정신을 살리기보다는 미디어토론의 관습적 틀만을 공통적으로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부문법과 규칙들을 끊임없이 자기반영/자기복제하면서 발전해나가는 미디어 장르는 관습을 반복할 뿐 아니라 변형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해나간다. 공중과 텔레비전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분석에서도 역시 기존의 시사토론의 상투적인 틀,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동시에 읽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토론의 발전적 중요성은 하나의 장르적 관습의 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유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포리스터(Forester, 1985)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가 참여적 매스 미디어의 실천을 통해 사회를 구축하고 정치적 동의를 관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 공론장이 가진 민주적 가능성은 엘리트와 일반공중, 공적 세계와 사적세계가 유리되지 않고 쌍방향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균형 잡힌 공간을 구축해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완·김태용·이상철·허경호 (2001). 《토론의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응숙 (1999). 시청자 참여 토론 프로그램의 구조와 담론 전개방식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3-3호, 36-72.
- 소현정 (1996). 《토론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대한 해석적 연구: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전화를 받습니다>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광식 (1987). 토론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 《방송연구》, 가을호, 58-71.
- 윤호진 (2000). 토론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점. 《방송문화》, 3월호, 2-13.
- 정병수 (1987). 토론 프로그램의 영역과 포맷. 《방송연구》, 가을호, 72-83.
- 허경호·강태완 (1999). TV토론 프로그램에 나타난 논증의 특성분석. 《프로그램/텍스트》, 창간호, 177-208.
- Curran, J. (1991). Rethinking the media as a public sphere. In P. Dahlgren and C.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new media Age* (pp. 27-57). London: Routledge.
- Forester, J. (Ed.) (1985).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Boston: The MIT Press.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 McCarthy, Trans.). Boston: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 F. Lawrence, Tra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2).
- Jensen, J. V. (1981). *Argumentation: Reasoning in communica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Lang, K., & Lang, G. E. (1968). *Politics and television*. Chicago: Quadrangle Books.
- McChesney, R. W. (1998). Making media democratic, *Boston Review* [On-line], 23(3), Available: <http://bostonreview.mit.edu/BR23.3/contents.html>.
- Newcomb, H. M., & Hirsch, P. M. (1984). Television as a cultural forum: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W. D. Rowland & B. Watkins (Eds.), *Interpreting television: Current research perspectives* (pp. 58-73). Beverly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장르 관습과 한계/ 김훈순, 김은정 97

Hills, Cal.: Sage.

Scott, G. (1998). 《토크쇼, 그 힙과 영향》 (김숙현 역). 한국방송개발원.
(원저 출판연도 1996).

(최초 투고 2001. 7. 31, 최종원고 제출 2002. 4. 20)

Television Debates: Genre Conventions and Their Limits as Public Spheres

Hoonsoon Kim & Eunjung Kim

(Ewha Women's University)

Public debate is an essential communication process of our society and now it's carried out generally by tele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on the potentialities and limits of TV debate as a public space. First, we examine the way of television's construction of public debate to discover the conventions of the genre. Second, examine its limitation and potentials as an public sphere. We analyse four TV debate programs during one month(June, 2001) using text analysis: format construction, nature of agenda, characteristics of panels and chairman, participation of audience, type of knowledge. The result shows that although numbers of programs are increased, many TV debates not differentiated each other in their format, panel, and contents, and merely reproduce genre conventions. Especially in policy debates, abstract agenda, male-dominated panel, limited participation of audience, and elitism and authoritative are prevailing. The genre's preconceived formulae and fixed convention restrict its own possibility of a participant and democratic public sphere. So, in order for TV debates to function as a open public sphere, to be flexible and re-examine the proper frame for mass media public sphere.

Keywords: TV debate, public sphere, convention, genre